



시골 우체국장의 웃음

이만수 지음

현재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는 저자가 경제공부를 하기 어려운 가정주부와 일반 시민들을 위해 엮은 생활 경제학. 학문적인 내용보다 생활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제행위를 쉽게 해석하여 꼭 알고 있어야 할 경제상식들에 대해서 서술한다. 또한 경제적 사고와 의식을 심어주는 저자의 의도를 잘 나타내고 읽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도록 대화형식으로 설명. 철이 엄마와 영희엄마 등이 등장하여 물가변동이나 어려운 경제용어를 저자인 이교수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는 방식이다.

남송 / A5신 / 272면 / 5000원

사파리 클럽

오정인 지음

금융 스캔들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 주인공 한혜미자는 뛰어난 미모와 사교술로 권력충돌과 결탁해 수천억원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오래 전의 악연에서 비롯된 청와대 안주인과의 암력이 심화되고, 결탁했던 기업체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다. 한 여인의 그릇된 욕망이 빚어낸 파문과 군부정치 하의 부조리한 사회상을 고발하는 작품.

열림원 / A5신 / 290면 / 5000원

呂氏春秋 (8覽, 6論)

정영호·엮음

동양사상의 백과전서로 불리는 이 책은, 공자의 사상에서부터 노자, 한비자에 이르는 중국 제자백가들의 사상을 집대성한 것이다. 본래 “呂覽”이라고도 하며, 8람을 근간으로 하여 천문·지리·인사 등의 분야를 제자백가들의 사상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6론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치도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유문고 / A5신 / 각 460, 250면 / 각 9000, 4000원

시와 리얼리즘

이은봉 지음

1929년에 발표된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시작된 리얼리즘 논의는, 90년대에

들어서서 ‘민족문학 위기론’과 함께 민족문학 내에서의 ‘리얼리즘 시 논쟁’을 불러온다. 이 논쟁의 과정에서 ‘리얼리티’의 범주가 보다 확대되었고, “시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책은 그동안 전개된 ‘리얼리즘 논쟁’의 현황과 ‘리얼리즘 시’의 구현을 위한 모색을 담고 있다.

공동체 / A5신 / 388면 / 6000원

계량경제학 입문

곽상경 지음

계량경제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계량경제학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간단한 미분과 수식만을 활용하여 설명. 실제 경제통계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실습하면서 책을 읽도록 구성하였다. 가장 기초가 되는 단순회귀모형의 추정과 연립방정식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거시경제 통계자료로 실습한다.

다산 / A5신 / 318면 / 9800원

인류사회는 왜, 어떻게 재건되어야 하는가

조영식 지음

평화운동가이자 전 경희대 총장인 저자가 유엔총회와 세계대학총장회의에서 세계와 인류를 향해 표명한 인류평화운동의 의지를 묶은 연설문집. 인류가 처한 생물학적 위기 등을 진단하고, 그 원인인 물질주의, 과학기술의 신앙을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한다. 저자는 “미래방향의 요인은 단순한 물질의 상승관계에서가 아닌 인간의지가 사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탈냉전, 탈이데올로기 시대인 21세기에 참된 평화를 위해 인류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고려원 / A5신 / 332면 / 7000원

아기와의 이야기

토마스 버니 지음 / 최상고 옮김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문제로만 취급되는 임신과 출산을 태어나는 아이측에서 다루어 본 의학박사의 연구서. 저자는 태아가 보고, 듣고, 느낄뿐만 아니라 산모의 감정도 읽을 수 있으며, 6개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정신적인 활동을 행사하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종래의 소아과학 문헌에 쓰인 ‘태아는 정신을 갖지 않는다’는 말을 반박한다. 태어나는 아이에게 있어, 태내에 있는 10개월간의 생활과 출산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는 육아지침서이다.

책과벗 / A5신 / 232면 / 4800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

양희은 지음

불우했던 가정환경 속에서 통기타에 청바지

입고 “아침이슬”을 노래했던 가수 양희은의 수기. “신부님의 이자놀이” 편을 보면 평생 갚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웃음이라며 아직도 갚고 있는 중이라는 사연이 들어있어, 저자가 살아온 삶을 짐작케 한다. 명동의 ‘청개구리’ 다방에서 김민기를 만나고 그 후에 노래와 맷은 인연, 그리고 두 번의 암 수술을 받은 상황 등 저자가 사랑했던 과거와 결혼 후의 생활을 기록한 글.

우석 / A5신 / 300면 / 5000원

황홀한 여자

김이연 지음

중견 여류작가의 풋트집.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를 탐구한 짧은 소설 50여편을 묶었다. 특히, 여자의 행복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시대를 황홀하게 살고 싶은 여자와 황홀하게 산 여자 이야기를 통해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드러낸다. 작가의 가볍고도 깔끔한 문체가 돋보인다.

작가정신 / A5신 / 308면 / 5000원

민족개조론

이광수 지음

춘원의 명논설들을 그의 사상의 발전단계에 따라 세시기로 나누어 편집한 책. 제1기는 춘원이 30세 이전에 「學之光」「青年」「毎日新聞」에 발표한 글로써 주로 계몽주의적인 성향을 띤다. 같은 시기인 27세에 기초했던 ‘2.8 독립선언서’도 수록되었다. 제2기는 도산 안창호의 영향을 받고 민족성의 개조와지도자, 엘리트 양성론을 강조한 시기이며 마지막 제3기는 춘원이 불교에 귀의하여 영혼의 구원과 안심입명을 모색한 종교적 영향의 시기로서 40세 전후부터 납북될 때까지이다.

우신사 / A5 / 328면 / 5000원

고요한 아침 눈부신 햇살

심재기 지음

우리말, 우리글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저자가 「주간한국」지에 발표했던 칼럼을 모음. “바르게 배우고 옳게 쓰지 않으면 말과 글에도 때가 끼고 먼지가 않는다”는 진리와 함께 사람의 인품과 말씨와의 관계를 비춰본다. 유행처럼 사용하는 낱말들을 짚어주어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게끔 유도한다.

집문당 / A5신 / 326면 / 6000원

자본주의 언론과 민주주의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엮음

우리사회에서 빈번하게 대두되는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다룬다. ‘자본주의 언론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내세우며, 문민시

대와 정보화 시대를 맞아 자본주의와 언론의 관계,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를 추적한다. 현실과 문화분석에 큰 비중을 둔 이 책은 출판산업과 방송구조 개혁의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한다.

한울 / A5신 / 272면 / 6800원

나는 60에도 화장을 한다

유상옥 지음

“코찢는 화장품” CF로 잘 알려진 코리아나 유상옥 사장의 경영 수필집. 새로운 제품이나올 때마다 직접 매니큐어와 크림을 사용하는 등의 세심한 경영비결을 고백하고 예순의 나이에도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얘기한다. 저자는 동아제약, 라미화장품을 거치면서 55세에 코리아나를 창업하여 4년 만에 1000대 기업에 들기까지의 인생역정을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들려준다. 또한 30년 경영인생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인관계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다.

크리 / A5신 / 304면 / 5000원

바보가 되거나

김현준 지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경봉스님을 처음 친견하여 법문을 깨친 저자가 쓴 경봉스님의 일대기. “바보가 되거나. 사람 노릇하자면 일이 많다. 바보가 되는 데서 참사람이 나온다”는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고, 생전에 남기고 간 법문집과 시집 등을 바탕으로 스님의 생애를 들춰본다. 이 책에는 스님이 옮겼던 시와 선문답이 “참 사람이 되려면 자기와 세속적인 계산법을 버릴 줄 아는 바보가 될 때 올바른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가르침과 어우러져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효림 / A5신 / 220면 / 4300원

어머니 나라에서 만난 시간들

로버트 오그번 지음 / 김성옥 옮김

현재 미 문화원장인 저자가 한국땅에서 생활체험을 전솔하게 표현한 수필집. 입양고아였지만 끝내 어머니의 땅인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 외교관으로 생활하게 된 저자의 이야기는, 특히 성장배경과 감성을 통하여 삶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 영어공부를 잘하는 법과 미국의 교육제도 등에 관해 서술하였고 특히 현대 영어의 감흥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하여 영어 원문을 수록하였다.

미투 / A5신 / 318면 / 4900원

약이 되는 약이야기

이미영 지음

흔한 질병과 그에 맞춰 사용하는 양약, 한약 그리고 간단한 생활요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

어준다.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으려고 약의 도움을 받는데, 이것은 “약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조력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책은 상비약을 잘 이용하고,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오용하고 있는 약의 부작용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어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게 하는 생활의학서이다.

새길/A5신/296면/5500원

돋보이는 여성의 하이센스 라이프

이노우에 가즈코 지음 / 심애니 옮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여성 영양학자가 제안하는 매력적인 여성의 다섯가지 조건. 몸과 마음의 건강, 지적이고 현명함, 신속한 일처리, 명쾌한 생활태도, 적정체중 유지가 이에 해당되는데, 저자는 적정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특히 강조하는데, 이는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긴장감을 가져야만 다섯가지 조건이 가능하다”는 얘기와 통한다. 덧붙여서 피로와 비타민의 관계, 다이어트에 필요한 아홉가지 식사방법을 일러준다.

오월/A5신/228면/4500원

계간지

철학과 현실 (93년 가을)

(특집) 사회개혁과 시민의식(황경식)

(특집논평) ▲법질서 확립이 과연 열쇠인가 (한상진) ▲개혁의 부담과 전망(김근태) ▲개혁논의, 역사적 접근이 요구된다(서경석) ▲행동의 연습과 체험의 중요성(문용림)

(논단) 경쟁의 미학 : 현대적 삶의 원류를 찾아서(김주성)

(고전철학특강) 스피노자 : 자기보존을 위한 철학(강영안) (현대철학특강)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김형호) (서평) 박정순, 「계약론적 자유주의 윤리학과 합리적 선택론」(김형철)

(논문) 플라톤의 소피스트 편에 있어서의 최고류(최정식) (서광선의 사랑방 방담) ▲현실 속에 살아 숨 쉬는 철학을 위하여(김태길) ▲

나의 철학적 인생론(김상일) ▲나의 학문과 철학(이홍우) ▲철학자 순례 : 철학적 해석학의 거장 가다미(김영한) ▲동양의 지혜 : 無我의 지혜(길희성) ▲여성과 철학 : 여성적인 도덕의 관점과 바람직한 인류공동체(허라금) ▲현대학문의 첨단지대(박승수) ▲청소년 논리 교실 : 목욕탕 속의 모순(김광수)

철학문화연구소/A5신/358면/5000원

외교 (93년 가을)

(특집)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북한의 생존 및 협상전략(윤덕

민)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연장협상과 우리의 핵외교(김태우) ▲북한의 핵문제와 한·미관계(박봉식) ▲중국시각에서 본 북한 핵문제(황병무) ▲북한의 핵 모험(정종문) [논문] ▲멕시코에서 보는 NAFTA(이상진) ▲안데안 공동시장의 현실과 전망(조기성) ▲남미 공동시장 추진현황(김병권)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문제(한영구) ▲한·베트남 관계 강화방안(박노수) ▲한반도(38선) 분할과 정의 재조명－美·蘇·日의 전략대결과 전시외교를 중심으로(김기조)

[수상] ▲나의 외교관 생활과 음악(김동성) ▲한국 신사(박상두) ▲리비아 첫 인상기(김승호) ▲김용식 장관의 회고록을 읽고(김광영)

[자료] ▲Address by the U.S. President 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한·베트남 관계 발전의 새 이정표

한국외교협회/B6/148면/3000원

著作權 (93년 가을)

[권두언] 영상저작물과 저작권(김수현)

[지상중계 1] 저작권 세미나－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의 진단과 전망 ▲제1주제－새로운 매체와 저작권법의 적용(김문환) ▲제2주제－베른협약 소급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정상조)

▲토론내용 요약

[지상중계 2]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토론 내용 요약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

[논단] ▲Idea/Expression 이분법에 대한 소고 2(정상의) ▲복제보상금제의 긍정론(황적인)

[각국저작권법 연구] 미국 2－미국의 통상정책과 저작권법(정상조)

[번역] 저작권과 저작권 이론의 역사 1(김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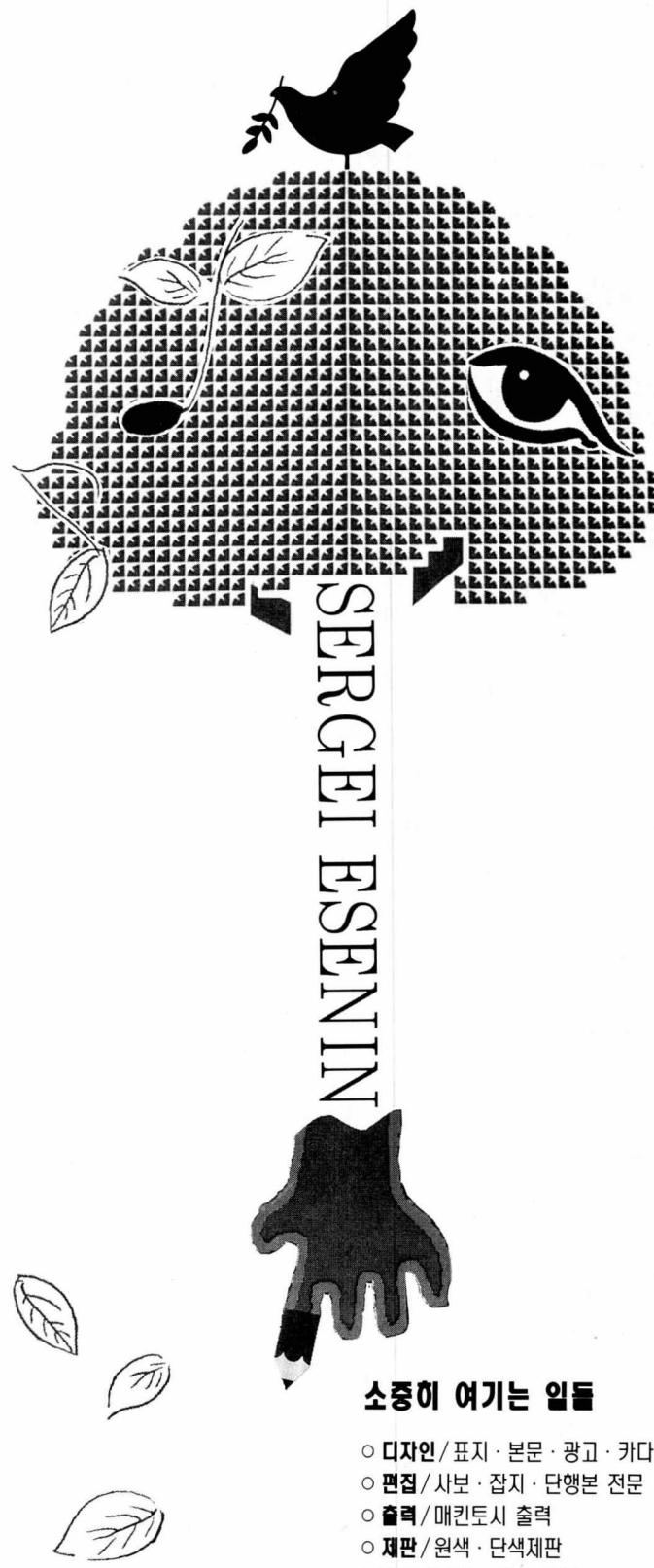
[최근해외동향] 일본의 사적 녹음·녹화에 관한 보상금제도 관련 동향(이호홍)

[자료] ▲사적복사·녹음·녹화 실태조사 실시 ▲저작권관련 주요소식 및 일지 ▲저작권관련 소논문, 발제 일람 ▲저작권관련 기사색인 ▲저작권 등록현황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B6/108면/2000원

200자 안내

한 사나이가 나뭇잎의 떨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스로가 자연의 거대한 떨림인지도 모르고



소중히 여기는 일들

- 디자인 / 표지 · 본문 · 광고 · 카다로그
- 편집 / 사보 · 잡지 · 단행본 전문
- 출판 / 매kin토시 출력
- 제판 / 원색 · 단색제판
- 제작 / 인쇄 · 코팅 · 제본

마루별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701-2391(대표) Fax:701-2395